

## 16과 /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본문:** 출16: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 **핵심 주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 **핵심 구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세요!"

### 1. 도입 (Slide 1~2)

- **말씀 나눔:** "반짝반짝 예쁜 눈, 쫄쫄귀 귀를 쫄쫄 세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짜-악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다를 멋지게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길을 뚝뚝 걸었어. 그런데 광야에는 마트도 없고, 빵집도 없고, 음식점도 없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파진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 2. 전개 (Slide 3~8)

- **말씀 나눔:** "광야를 걷던 백성들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으앙, 배고파 죽겠어! 여긴 빵도 없고 고기도 없잖아!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온 거야?' 백성들은 입을 뻐죽거리며 모세에게 불평하고 투덜거렸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겠다! 해 질 무렵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파닥파닥~ 파닥파닥~' 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이 날아와 진영에 가득 내려앉았는데, 바로 맛있는 '메추라기'였어요! 백성들은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풀잎 위에 이슬이 마르자 땅 위에 눈송이처럼 하얗고 둥근 것들이 가득 깔려 있었어요. '어? 이것이 무엇이지?' 백성들은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하고 바삭바삭 아주 맛있는 하늘의 빵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 먹을 만큼만 바구니에 담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필요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셨답니다!"

### 3. 적용 (Slide 9~10)

- **말씀 나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밥투정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없다고 '잉잉~' 투덜거린 적이 있나요? 하지만 꼭 기억해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예쁜 옷, 따뜻한 가족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알맞은 때에 쏙쏙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투덜거리는 불평 대신,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예쁜 입술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 4. 결단 및 구호 (Slide 11)

- **다 함께 외치기:**
  - 교사: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불평하면 될까요?"
  - 어린이: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 교사: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꿀맛 나는 빵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 어린이: "하나님이요!"
  - 교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채워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 어린이: "하나님이요!"
  - **합창 구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세요!"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었다가 앞으로 활짝 펼치며 외치기)

### 5. 한 줄 확인 퀴즈

광야에서 배가 고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투덜거렸어요)

### 6. 마무리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 주신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입을 옷,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쁜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